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

Ours that Are Not Ours

저자 Author: 전시현 Jeon Sihyun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학사과정 BA Program, Communication Design, Konkuk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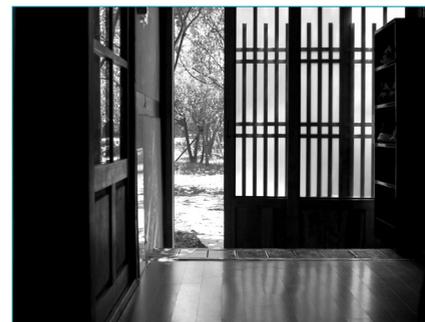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특집 기획: 디자인 기획 Special Feature: A Short Design Field Trip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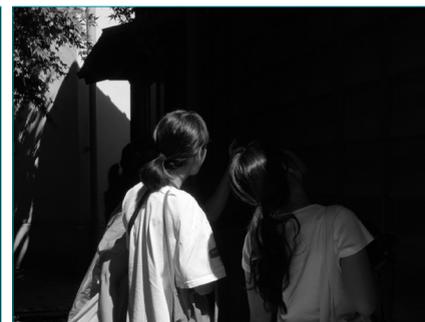
242243

전라북도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해안과 맞닿은 곳에는 항구 도시 군산이 자리 잡고 있다. 호남평야가 뻗어있어 미국생선이 유리하고 바다와 접해있는 지리적 특징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절 경제 수탈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군산으로 이주했고 그 당시 조선으로 이주한 것은 비단 일본인뿐만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의식주 또한 조선의 땅으로 흘러들어왔다. 그 중 '주(住)'에 해당하는 일본인이 생활했던 '집'은 우리는 '적산가옥'이라 부른다. 적산가옥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적의 재산 중 주택을 의미한다. 우리는 군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과 100년 전에는 일본인이 소유하고 삶을 꾸렸지만, 이제는 한국인의 집, 카페, 식당, 사진관, 박물관이 된 다양한 가옥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군산에 도착하자마자 방문한 첫 번째 장소는 어떤 유적이거나 문화재도 아닌 바로 우리가 하룻밤 머무를 '여미랑'이라는 이름의 숙소였다. 일본인의 평범한 가정집이었던 곳이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면서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다다미 바닥재였다. 한여름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들어온 후 위에 눕는 그 감촉은 너무 시원하고 편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근대사의 산물 속에서 묵으면서 '과연 여기엔 어떤 일본인들이 살았을까? 어쩌다 여기에 오게 되었을까?'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미랑'의 한자를 풀면 이렇다. 忝(잇을 여), 未(아닐 미), 廊(사랑채 랑). 한자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 군산시 관광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이곳에 묵으면서 만든 추억 또한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아픈 역사는 역사대로 기억하고 또 현재 즐거운 추억은 추억대로 간직하라는 '여미랑'은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역사를 어떤 자세로 다뤄야 할지 귀뜸해 주는 듯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의 바람대로 하룻밤 묵으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



[그림 1] 숙소 '여미랑' 실내에서 본 다다미방 전경.



[그림 2] 전통 일본식 실내 공간, 도쿄노마

다음 행선지는 '신흥동 가옥 (구 히로쓰 가옥)'이었다. 신흥동 가옥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대다수의 적산가옥과 다르게 새로운 용도로 개조하지 않고 가옥 자체를 관광지로 보존해 놓았다. 일제강점기 시절 지방의회 의원이었던 히로쓰 게이사브로가 지은 주택이다. 호화로운 겉모습에서 벌써 예상이 가듯이 신흥동 일대 자체가 부유층이 거주하던 동네라고 한다.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마찬가지로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이 정도의 호화로운 주택이라면 아무 걱정 없이 유유자적하게 살았을 것 같았다. 사실 신흥동 가옥에 어릴 적 부모님과 온 기억이 있다. 당시에는 아무런 지식과 감흥 없이 이성당 빵집이나 얼큰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둘러본 것 같은데 10년이 넘는 세월 만에 같은 장소에 다시 돌아와 더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둘러보는 감회는 오묘했다.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을뿐더러 관심도 없었던 가옥에 대한 세부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100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10년이라고 변했는가?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와중에도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남아있는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년 2월 28일

Received Date: December 30, 2024

Accepted Date: January 27, 2025

Published Date: February 28, 2025

pp.242-245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것들은 왠지 모를 울림을 준다.

세 번째로 우리의 발길이 닿은 곳은 '동국사'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 사찰이다. 지금이야 우리나라의 사찰이지만 광복 이전에는 '금강사'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의 사찰이었다. 조선의 땅에 우두커니 일본 전통 사찰이 자리 잡게 된 식민 지배의 역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입구를 거쳐 안쪽으로 향하면 대웅전이 그 가운데를 지키고 있다. 전통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한국인이려면 이것이 과연 한국의 것인지, 일본의 것인지, 중국의 것인지 그 차이를 직감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누가 봐도 화려한 단청이나 장식 없는 새하얀 외벽과 숲처럼 검은 목재를 두른 매우 일본스러운 외관이었다. 그와 어울리지 않게 한국의 사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괴리감이 들면서도 흥미로웠다. 껍데기는 일본의 것이지만 그 알맹이는 우리나라의 것인 셈이다. 이런 혼종이 웬 말인가 손사래를 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알맹이다. 내가 즐거우면 그곳이 놀이터고 내 마음이 편하면 그곳이 집인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고 <동국사>라는 한국의 사찰이다.



[그림 3] 동국사는 원래 일본식 사찰이었다. 현재는 한국의 절로 사용되고 있다. 곳곳에서 일본의 건축적 요소가 남아있다



[그림 4] 조선식량연단 건물은 관공서이면서 당시 1920년대 이후 등장한 아르데코 양식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근대 건축관과 미술관을 방문했다. 두 장소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의 경제 수탈을 목적으로 건립한 자본의 상징인 은행이 들어서 있었다. 건축관 1층에는 금고, 지점장실, 응접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 비록 지금은 박물관이라는 공간으로 변했지만, 과거 은행이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하며 안을 누볐다. '창구는 여기 있었겠구나, 고객들은 여기 앉아서 대기했겠구나.' 등등의 상상 말이다. 그러다가 문득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의문점이 뇌리를 스쳤다. 당연히 일제 잔재는 이유를 불문하고 청산해야 하는 것으로 배웠고 인식하고 있던 터라 '일제의 잔재를 이렇게 보존해 놓는 것이 옳은가? 조선총독부를 그러했던 것처럼 형식적으로든 철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과연 철거만이 답인가?'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은 겪으면 안 될,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긴 어두운 역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대가 그 흔적을 되짚으며 배움을 얻어야 할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다. 둘 다 필요한 관점이므로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그릇됐다고 이분법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100년은 한 민족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면 아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치유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다.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그 상처는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이제 2024년의 한국인은 식민 지배의 역사라는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다다른 것 같다. 적산가옥처럼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꾸러 나갈지에 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비록 그것이 아픈

상처였던 것이라도 잘 가꾸고 보살펴서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귀 아프도록 들어 이제는 클리셰가 되어버린 문장이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면 상황을 가리지 않고 듣게 될 말이라 생각한다. 과거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국가유산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 >

244245